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삼계탕 드시고 힘내세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초복 맞이 전국 센터 보양식 배식

2026. 7. 15.

정종철 CFS 대표가 15일 인천 31·32·41·42·43센터에서 초복맞이 삼계탕을 배식하고 있다

- **정종철 대표, 초복 맞아 인천 지역 센터 방문해 현장 직원 격려**
- **전국 주요 센터에서 삼계탕 등 보양식 배식 9월까지 혹서기 안전보건 관리 총력**

2026. 07. 15. 서울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을 맞아 현장 직원들의 영양식 챙기기에 나섰다.

CFS는 초복인 15일, 전국 주요 풀필먼트센터에서 현장 임직원들에게 보양식을 배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물류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종철 CFS 대표는 인천 서해구에 위치한 쿠팡 인천 풀필먼트센터(31·32·41·42·43)를 방문해 혹서기 대응 현황 등 현장 안전보건 관리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에게 따뜻한 삼계탕을 직접 배식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CFS는 초복을 맞아 현장 직원들을 위해 삼계탕을 준비했다

CFS는 삼계탕 행사가 진행된 인천 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센터 구내식당에서 삼계탕, 삼계죽 등 다양한 보양 특식과 시원한 디저트를 준비해 전국 현장 임직원들의 활력을 북돋았다.

정종철 CFS 대표는 “무더위 속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은 책임감으로 현장을 지켜주시는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모두 삼계탕 맛있게 드시고 올여름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CFS는 6월부터 9월까지를 ‘혹서기 특별 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장 직원들의 안전보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전국 주요 센터에서는 대규모 냉방 설비 확충 및 냉기 밀폐형 도어 등을 도입하는 ’HVAC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확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현장 근무자들에게 냉매조끼, 쿨토시, 냉패치 등 보냉장구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현장 곳곳에 시원한 휴게 쉼터를 마련하고 얼음물과 아이스크림 등을 상시 비치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